

월요일자 대학주보 받기 어려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우려

매주 월요일이면 기다려지는 것들이 몇가지 있다.
우선 친구들의 따뜻한 얼굴이다. 친구들이 있는 캠퍼스는 더욱 화사롭고 활기 있다. 그들과 어울려 있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 중의 하나다. 그 다음은 점심시간이다. 먹는것의 즐거움이란 큰 법이 아니던가. 더구나 왕성한食欲을 자랑할만한 우리 포레의 나이야 더 말할 나위없는 기다림이 아니던가.

최명주
(농학2)

대학까지 파고드는 물질만능 기여입학제 여론수렴 통한 시행 필요

요즘 신문에서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논란의 글들이 실리고 있다. 건대입시 부정사건이 발효된 이후 교육부에서 나온 '기부금 입학제' 검토라는 짧은 신문기사는 밤을 새가며 대학진학을 준비중인 학생들이나 자식교육에 온 힘을 쏟는 부모님들 우리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세계 어느나라 보다 교육열이 높다 못해 지금도 과열되어 입시부정까지 생기는 판인데 이것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합법화' 시킴으로써 법적으로 당당히 '법외'를 저지르고자하니, 이들은 그야말로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법자'들이었다.

'사학재단의 재정난의 해소'라는 말은 매년 3월이면 등록금문제로 학교마다 최후판이 가동되는 그 한나만으로도 얼마나 터럭을 소름이 돋아나게 하는지. 과연 '기부금 입학제'만이 현재 입시부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일까? 아니면 그저 재단에서 학교에 내놓은

돈이 얼마나 되며 그런 재단이 몇개나 될까? 학교재정의 90% 이상이 등록금으로 해결되는 현실에서 10%는 커녕 한자리를 달리는 재단의 기부는 그것이 재정부족 때문인지 아닌지 재단의 자산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사회의 관심이 쏠려야 할 것이다.

김대근
(정외2)

상품화되는 현시대의 여성가치 게임에 까지 번진 인간경시 풍조

최근 일본의 여성운동가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장본인은 '인간쓰레기'라는 게임카드인데, 이것을 전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임은 일본의 장난감회사 '디카라'에서 만든 것으로 여성을 그 가치에 따라 사고 파는 48장의 카드로 되어 있다. 수형복이나 반

의 여성들이 신체적 특성이 상품화 된 후 동등하게 거래되고, 처녀 카드는 높은 점수로 홍콩 카드는 싼 값으로 팔린다. 현대판 노예 사냥인 인간쓰레기 게임이 번지고 있는데, 이 게임은 일본의 장난감회사 '디카라'에서 만든 것으로 여성을 그 가치에 따라 사고 파는 48장의 카드로 되어 있다. 수형복이나 반

김대영
(원자3)

9월 주제 '어머니'

국민학교 시절의 일이다. 국어시간에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낳아 주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사내 아이들은 어째서 어머니가 우리를 낳지 않고 기르셨느냐며 논란이 분분했었다. 엇그제 같은 일이다. 어느덧 불혹의 언덕을 넘어서서 그 당시의 일을 회고해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머니의 기르심을 강조하신 국어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로 얽혀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이끄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족들간의 진정한 정과 인간관계를 정립해서 그 구성원들간의 위계와 순리를

기르는 정 강조되는 어머니

만들어주는 것은 어머니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것도 대부분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는듯 하나 실제로 어머니가 가족의 진정한 정을 이어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가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규율과 법칙에서 잘 조화된 삶을 이어나가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부각시켜 줄으로써 자식들에게 권위에 대한 인지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한 사회는 질서를 유지해 나갈수



현종민
(사회대교수·행정학)

"어머니의 정이 한가족을 온전하게 하듯이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정이 학생들에게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

역할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사회적 공헌도를 생각하면 그 위대함은 더욱 커진다. 사회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일수록 어머니의 기르는 정은 더욱 절실하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가족들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어머니의 기르는 정은 사회의 권위를 높여주고 사회의 권위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감당해야 할 책임

학생회관 식당 영업중지 다수 학생의 불편 고려했어야

지난주 수원캠퍼스학생회관 식당이 문을 닫았을때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 식당을 떠나려면 현관에는 '무분별한 압력으로 식당을 닫는다'라는 입자의 대자보와 '조속히 조치를 내겠다'는 학생회의 대자보만 이 공허하게 붙어있었다.

단지 며칠밖에 안되었지만 사전에 공고나 안내가 안된 상태에서 학생회관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온 사회대, 자연대 학우들은 짜증스러웠을 것이다. 그것은 점심시간에 먹기 위해서는 고개를 넘어 공대나 의대에까지 가야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학생회관식당의 절은 그동안 학우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많았다. 말그대로 울며 겨자먹

수수=9월 2일 오후 3시30분 도서관 앞 정자
◆수철=▲판공제=9월 2일 오후 교내
【수원캠퍼스】▲조정원(서반아3)=김은혜지갑, 4일 강남역 스타벅스사장

동북고 동문회

본실자 본사편집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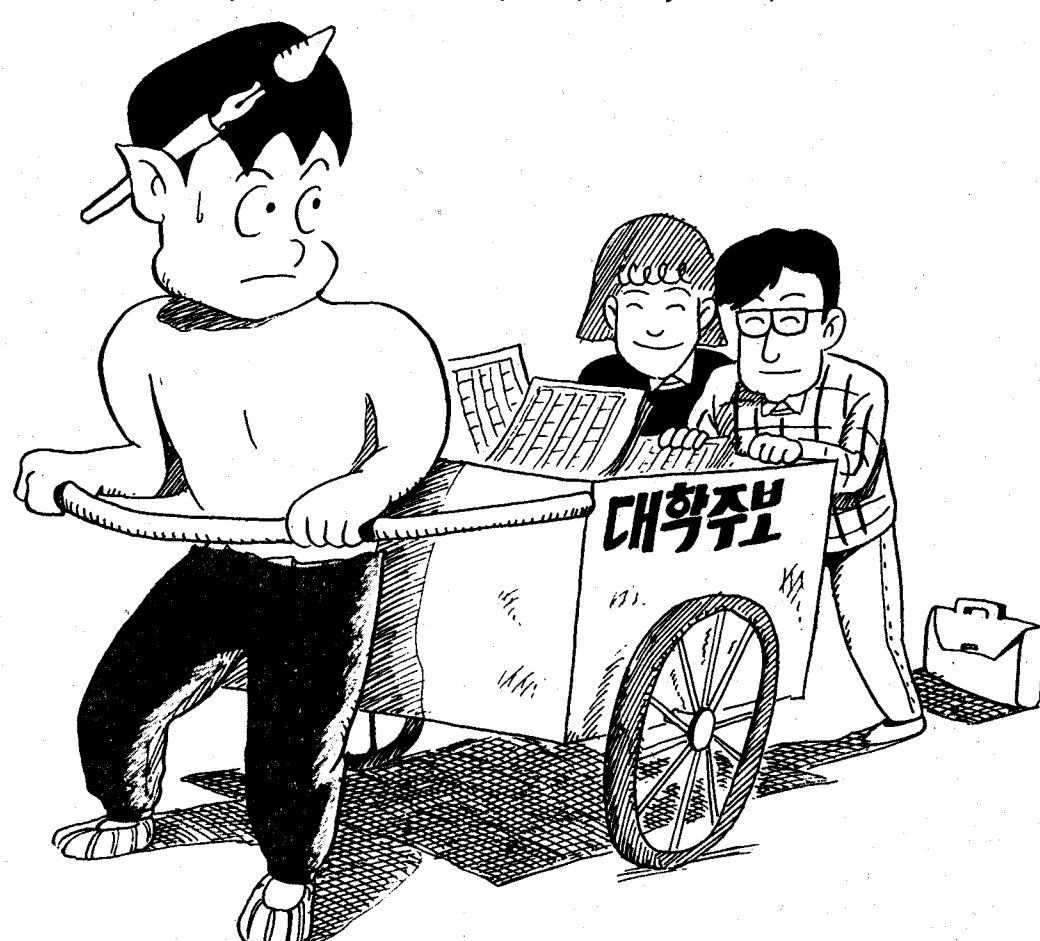
【서울캠퍼스】▲학생증=▲연경아(수학·87) ▲안미영(가관·87) ▲임상준(영문·86) ▲서정철(물리·87) ▲장재봉(사학·87) ▲강영자(경제·88) ▲김명희(경제·85) ▲이동준(경영·85) ▲김명현(경제·86) ▲안현식(경영·90) ▲이상희(무역·88) ▲정석재(무역·91) ▲김세원(미교·91) ▲조미선(영교·88) ▲고용준(의예·90) ▲임경옥(의예·86) ▲신상순(의예·87) ▲신준성(한의예·87) ▲민경아(한의예·88) ▲정선경(치의예·87) ▲김보경(치의예·88) ▲전상규(약학·88) ▲이은영(기약·88) ▲김진기(기약·91) ▲염정철(체육·87)

【수원캠퍼스】▲학생증=▲김용준(행정·91) ▲유동선(무역·90) ▲강두식(경영·85) ▲오해식(경영·90) ▲김미연(수학·90) ▲최승준(기계공·89) ▲김양호(기계공·89) ▲정준화(토목공·89) ▲설진선(건축공·90) ▲성영진(원자력·90) ▲김용환(산업공·90) ▲박희명(섬유공·89) ▲정은주(전자계산공·91) ▲박원영(전자계산공·90) ▲이재준(전자공·90) ▲전은주(농학·90) ▲김보문(태권도·89) ▲정재형(체육·89) ▲김진희(체육·91)

【수원캠퍼스】▲본실(산공·1) ▲장선호(산공·1) ▲강봉석(산공·1) ▲김태웅(산공·1) ▲전우철(우주·1) ▲이덕남(우주·1) ▲김호(전자·1) ▲정동교(원자·1)

독자만평 민학기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주보는 기자과 독자가 함께 만듭니다!



경희인의 理想과 思考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 말해봅시다(200자 원고지 4~6매)
'말해봅시다'는 교수·학생·직원 등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의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 합니다.
- 교수논단(200자 원고지 20~40매)
전문인인 교원이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남입니다.
- 독자논단(200자 원고지 20~40매)
학생의 연구성과나 교수·직원·학생이 학내의 문제제기에 대한 심층적분석 혹은 시사적인 주의를 장을 펴는 남입니다.
- 특자문예
경희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남으로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매주제출없음) ·수필:(200자 원고지 10~15매)
·비평:(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소설:(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4·5회 연재분
- 사건·사고 제보 및 정보 서비스
학내외적으로 한 번쯤 대학주보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정보를 최대한 서비스해 드립니다.(자료의 성격상 반출이 금지되거나 열람만 가능한 것도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고는 본사편집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실 수 없을 경우 전화나 Fax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주·야간) 963-5849, 961-0093~5
수원캠퍼스(주간) (02)745-5702 (교환:2055-6,2860)
(0331)280-2055-6, 2860
Fax 서울캠퍼스 963-5849 수원캠퍼스(0331)280-2238